

#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

## 역사 속의 발명품

### 마쓰시다의 쌍소켓

1920년 경, 일본에서 당시의 금액으로 30억엔(한화 2백 40억원)이라는 큰 돈을 벌게 한 히트 상품이 바로 쌍소켓이다. 오늘날 전기 공업계의 대표격인 '나쇼날'의 기초를 세운 실업가 마쓰시다 회장은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다른 공장의 직공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슬한 고생을 하다가 23살 때 독립하였다.

오사카시의 변두리에 작은 셋집을 얻어 3명의 사원을 데리고 공장을 차린 마쓰시다의 첫 번째 제품은 플러그이며 이어서 만든 두 번째 제품은 그를 대 실업가로 만들어준 쌍소켓이었다.

어느날 마쓰시다가 거래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하여 어느 민가 추녀 밑에서 서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집안에서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.

말다툼하는 내용을 무심코 들어보니 전기 사용의 우선 순위가 원인인 듯 했다. 부인이 전기 소켓에 다리미를 꽂아 옷을 다리고 있던 중 남편은 날이 어두워져 전등을 켜야겠다고 다투는 소리였다.

'어두우니까 전등을 켜야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소?'  
'잠시만 기다리세요. 옷을 마저 다리미질해야 하나니까요.'  
'옷은 내일 낮에 다리면 될 것 아니요?'  
'지금 마저 다리지 않으면 옷이 다 말라서 안돼요.'  
이렇게 부부는 양보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며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.

'울지, 하나의 전등선에 두 개의 소켓을 달면 저런 다툼은 없을 것이 아닌가!'

공장으로 돌아온 마쓰시다는 밤새도록 설계도를 그리고 다음날 당장 만들기 시작했다. 그 당시 하나의 전선으로 모든 전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천장에 매달린 전선에 이 쌍소켓을 달면 전등도 켜고 다리미나 선풍기도 동시에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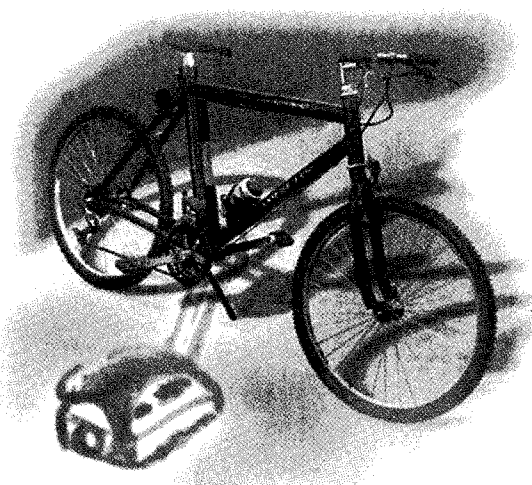
이 쌍소켓이 새로 선보이자 그 인기는 날로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 1년 사이에 30억엔이라는 엄청난 수입이 생겼다. 이것이 자본이 되어 오늘날의 '나쇼날'이라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.

## 발명 아이디어

### 발등 덮개가 있는 자전거 페달

이 페달은 어느 자전거에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발등 덮개의 기포 조작은 승차 중에 발만 약간 움직여서 조작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

본 개발 페달은 구동 중에 발이 페달에서 이탈되지 않게 함으로써 밟고 끌어 돌리는 약간의 힘으로 전 구간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어서 밟아 내리는 힘과 끌어 올리는 힘이 합쳐져 동시에 가해지므로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. 또한 한쪽 발로도 구동이 가능하므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.



#### 사업성

작은 힘으로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사용 가능하고 끌어당기는 다리의 운동을 할 수 있어 운동 효과가 있으며 또한 수많은 자전거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#### 응용분야

일반 교통용, 레저 스포츠용, 산악 경기용 등으로 이용 가능함.

발 명 가 : 윤영재  
출원번호 : 특출 1990-0054267

## 특허 Q&A

Q 기술평가 결정은 어떻게 처리되며,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실용신안공보 등에 어떻게 반영되나요?

A 기술평가 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**기술평가 청구에 대한 공시**  
기술평가의 청구사실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이 권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이해관계가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청구 취지에 대해 특허청은 예고등록을 합니다.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함께 게재합니다.  
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이 있게 되면 특허청장은 그 사실을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. 이때 특허청장은 예고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. 또한 동 결정의 원본에 의하여 동 결정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.

**기술평가 결과 실용신안의 등록 여부**  
가. 등록요건 만족  
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(법 제25조 제2항). 등록을 유지한다는 기술평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종래 등록사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바, 특허청의 처분에 권위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불복을 방지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.

나. 등록요건 결여  
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이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제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청구인에게(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도) 의견제출 통지서가 송부됩니다.  
기술평가청구인은 2개월의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실용신안권자는 동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 및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상기 2개월의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1회, 1월의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.

다. 등록실용신안 취소 결정  
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(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)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 
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재차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.

\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콜센터(1544-808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함께 풀어봅시다!**

### 어느 쪽이 범인일까?

설록 흠즈는 호놀룰루에서 유명한 중국계 경찰 찰리 장 경감을 만났다. 찰리 장은 추리 작가 비저스가 창조해낸 유명한 경찰이다. 그 때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본인 아가씨가 비키니 차림으로 죽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. 권총으로 배를 맞았다는 얘기였다. '그런데, 이건 뭘까?' 찰리 장 경감은 급히 달려온 찰리 장 경감은 옆에서 있는 시체의 오른손 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. 그곳 모래 위에 'K&A'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. 피살자는 죽기 전에 어떻게든 범인에 관한 단서를 남기고 싶어 손끝으로 모래 위에 적어 둔 것이 틀림없었다. '그렇다면, 범인의 이름의 첫 글자가 K와 A자로 시작되는 2인조일까?' 찰리 장 경감은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. 수사 결과 두 명의 용의자가 떠올랐다. 둘 다 호놀룰루 시내 뒷골목에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불량배였다. 그들의 이름은 간다 이치로와 도이 마사히코였다. '이상한걸, 간다의 첫 글자는 K지만, 도이의 첫 글자는 D지 A가 아닌데...' 찰리 장 경감이 두 사람의 머리글자와 한참 씨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흠즈가 힌트를 주었다. 그리고는 두 용의자 중 한 사람을 체포했다. 어느 쪽이 범인일까?

**[지난 호 문제] 같은 크기의 정삼각형을 만드세요.**

**[해답] 아래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를 떼어내면 된다.**

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. 20일까지 여러분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(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).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문의전화 02-538-2710 / 보내실 곳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-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「한국여성발명협회」 앞(우편번호 135-980)  
e-mail: kwia@inventor.or.kr

해답은 다음 호에...

**[광고문의]**  
**(사)한국여성발명협회**  
**(02)538-2710**